



2023년 12월 24일(제1172호) 대림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기도의 지혜”

신학교 입학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 중에 “여러 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암시할 수 있는 자기 암시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가능성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이 더 많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능’보다는 ‘불가능’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을 마주했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못 해.’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로 좌절에 빠져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데, 말로는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느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능’하심에 주목하는 ‘믿음’보다, 그분의 ‘불가능’에 주목하는 ‘불신’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에는 성모님의 그런 굳은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나의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청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강윤(모세) 신부
태릉(육군 제28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2사무 7,1-5.8ㄷ-12.14 7.16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특 시 복음 변호송

로마 16,25-27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1,26-38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한 번째 시집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고문을 당한 후 반죽음을 당하여 감옥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차츰 정신을 되찾자 프란치스코는 신음하는 소리를 하며 자기와 함께 체포되었다가 고문을 못 이겨 배교한 자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마지막 처절한 고문을 받은 지 사흘 후 함께 잡힌 동료에게 “나는 오늘 죽을 겁니다. 목이 아주 마르니 마실 것을 좀 찾아 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가져다 준 물을 마신 다음 다시 한 번 배교자들에게 대하여 동정하는 말을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하여는 마지막 형벌을 당하던 순간, 즉 목이 잘리던 순간의 목격 증인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의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 있던 (최희정) 야고보라는 아들마저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형틀에 동여 매어져 소달구지에 실려 형장으로 떠나려 할 때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 있던 아들 야고보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게 되거나 앓을까 염려했던 때문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감옥의 하인 한 명을 가르쳐 예비시켰는데, 그가 아직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하느님을 믿었고, 형장에까지 따라가서 마리아가 혼연한 낮으로 형벌받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으며, 또 그 이야기를 아들 야고보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시체는 아들과 친척들이 다 찾아서 매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시체는 함께 참수된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묻혔으며, 또 비신자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비신자들 무덤 가운데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 프란치스코는 신자들 무덤 사이에 똑똑히 구별할 수 있게 묻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대



그때그때는
이날이 오기를
날을 세며 기다렸다.

기대를 갖고,
설렘을 안고.

오늘 오늘은

그 어딘가에 남아있을
그 기대와 설렘을 찾아.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이니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1415년~1492년)
1470년~1475년 제작, 124.4 × 122.6cm / 린타, 내셔널 갤러리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모든 형태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찰나적인 우리 삶과 인생을 예술을 통해 영원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기를 추구하였다. 이 그림에서도 인물들은 동적인 상황에서도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순간이 절대적인 순간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몇백 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현대적으로 다가온다.

중앙에 쓰러져 가는 허름한 건물에 소들이 보이고, 전면에는 성모님이 무릎을 꿇고 계시며, 그 전경에 예수님이 성모님의 펼쳐진 푸른 겉옷 자락 위에 놓여져 계신다.

아기 예수님은 마치 성모님 혹은 하늘 방향으로 팔을 뻗고 계시고, 예수님 뒤쪽으로 천사들이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성모님 뒤편으로 앉아 있는 성요셉이 보이며, 옆에 있는 목동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성무대 박진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때: 12월 24일(주일)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종무식/미사

때: 12월 29일(금) 16: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때·곳: 12월 25일(월)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